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10.22.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이사회, 스위스의 호라이즌 유럽 재가입 승인(10.21)

- EU 이사회가 스위스의 호라이즌 유럽 재참여를 승인(호라이즌 유럽, 유라툼, ITER/F4E, 디지털 유럽, 에라스무스+, EU4Health 등 주요 EU 프로그램)하며, 양국 관계에 대한 수년간의 불화를 종식시키는 중요한 진전을 이룸
- 협정 서명은 2025년 11월 10일 베른에서 이루어질 예정

○ EU, 과학 연구에서의 AI 오남용 신고 메커니즘 도입 검토(10.16)

- EU 집행위원회는 과학 연구에서의 인공지능 오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EU 차원의 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중임. 유럽단일연구공간법 (ERA Act)을 통해 EU 차원의 원칙 및 책임 있는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
- 현재 AI 오남용 사례를 EU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안전하게 제보할 만한 제도나 채널이 부족하다고 지적. 이러한 제도적 부재가 위험한 AI 활용을 방치하고, 연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
- 한편 연구계는 신고 제도가 자칫 정치적 무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간섭 위험을 지적

○ State of AI 2025 보고서, 5가지 주요 차트 제시(10.16)

- 최근 발표된 [State of AI 2025 보고서](#)는 AI 산업 현황을 분석
- EU는 중국보다 더 많은 민간 자금을 투자하지만,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큼. 미국은 AI 컴퓨팅 역량에서 점차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EU는 개방형 모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.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주도 AI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이나, 다만 AI분야 기초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

- (가) ▲유럽의회, FP10 논의 통해 유럽 내 혁신격차 해소 방안 논의 재개(10.16)
▲호라이즌 유럽 공동사업단 참여 현황(10.21) ▲IGLO 네트워크 연구관리자,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간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(10.21)